

韓國·中國·日本 女性의 色調化粧文化

경희대학교 가정대학 의상학과

강사 박 보영

경희대학교 가정대학 의상학과

교수 황 춘섭

目 次

- I. 序論
- II. 色調化粧의 發達과 機能
- III. 化粧品 및 使用法
- IV. 色調化粧文化의 性格形成 要因

V. 結論

参考文献

ABSTRACT

I. 序論

역사가 시작되면서 부터 인류는 자신의 신체를 장식하여왔다. 한편 인간의 美意識은 時空의 차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인간이 신체에 행하는 장식인 화장도 시대와 국가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띠게 된다. 화장의 다양한 양식이 발생하여 유지되고 변천하는 데는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하므로 화장문화의 연구는 화장의 展開와 함께 화장문화의 배경이 되는 사회 문화적 상황에 관한 연구의 병행이 요구되어진다.

또한 화장문화는 주변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발전하였기 때문에 보다 심도 있는 이해를 위해서는 주변국의 상황과 연계 지어서 고찰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本論文에서는 지역적으로 서로 인접해 있으며 유사이래 정치, 종교, 문화등 다방면에서 相互間 매우 큰 영향권내에 있는 한국, 중국, 일본 여성의 얼굴부위 色調化粧文化에 대해 사회 문화적 배경과 관련지어 연구함으로써 삼국 色調化粧文化의 성격과 그 성격 형성에 영향

을 미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첫째, 색조화장이 女性文化로 전이발달되는 과정과 색조화장의 機能 파악, 둘째, 한국·중국·일본 지역에서 사용된 여성용 색조화장품의 종류와 제조법 및 화장법 비교 파악, 세째, 한국·중국·일본 여성 색조화장문화의 성격형성 요인 분석이다.

II. 色調化粧의 發達과 機能

1. 色調化粧의 發達

얼굴을 중심으로 한 색조화장이 생겨나기 전, 한국, 중국, 일본지역에서 “美的表現”을 목적으로 행해졌던 裝身행위중 색조화장의 초기형태라 할 수 있는 것은 신체 도색과 문신(文身)을 들 수 있다. 원시단계에서 사람들은 흙이나 야생열매에서 추출한 채색용 염료를 가지고 칠을 하거나¹⁾ 흙이나 그을음, 들가루에 기름을 섞어서²⁾ 사용하는 등 신체채색용의 顔料를 자연물에서 채취하여 사용

하였는데, 이것은 後代로 와서도 상당히 오랫동안 계속되었다.

그러나 신체 도색은 씻으면 지워지는 단점이 있어, 씻어도 항구적으로 씻기지 않는 것을 모색한 결과 문신이 고안되었다.³⁾

문신풍습은 의복문화의 발달로 신체가 피복되면서 쇠퇴해가고 신체 노출 부위중 가장 可觀性이 높은 얼굴부분에 더욱 집중 발달하게 되어 색조화장문화를 형성하게 되었다.

얼굴의 색조화장행위에 성별의 차이가 나타나는 시점은 성에 따른 노동의 분업화가 이루어지는 단계로 유추되어진다. 농경법의 터득은 인구의 증가와 생산물량을 증가시켰고, 인구의 증가와 잉여 생산물의 축적은 인류의 정착생활을 불가피하게 하였으며⁴⁾ 남자와 함께 먹이 사냥을 위하여 산과 들을 뛰어다니던 여자들은 정착지에서 아기의 출산, 양육, 음식의 조리, 의복수선, 직조 등을 맡게 되어 노동에 있어서의 성역할 분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집에 머무는 여자들은 가사일을 위하여 물을 길러 가는 일이 많았고 수면에 비치는 자신의 용모를 접할 기회가 증가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다른 여자의 머리모양이나 용모와 비교하면서 조금 더 자기자신을 아름답게 치장하려고 노력하였다 것이다.⁵⁾ 정착지에서의 생활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자신의 신체를 더욱 치장할 가능성의 단서를 제공한다. 이러한 단서는 남·녀간 性的매력의 기준이 변화하게 되어 남성미와 여성미 개념의 分化·形成에 타당성을 부여한다.

나아가 차츰 개별혼인의 형식에 가족의 개념이 생기게 되면서 좋은 남편, 좋은 아내를 얻기 위해 남자는 남자다워야 하고 여자는 더욱 여자다워야 했는데⁶⁾ 이때 여자다움이란 말의 의미에는 용모의 중요성이 포함⁷⁾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여성의 색조화장은 용모의 아름다움이 여성미의 중요한 요소로서 인식되는 과정에서 학습 및 유전되어 정착된 문화로 인식되고 있다.

2. 색조화장의 기능

1) 裝身 기능

자연 그대로의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지 않고 인공적으로라도 타인에게 호의적인 어필을 증대시키고 보다 유리한 입장에 서고자 하는데⁸⁾ 화장행위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중요한 수단의 하나가 된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2) 주술적 기능

인간은 현실의 괴로움과 불행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은 갈망의 해소 및 영적존재와의 접촉방법으로 둔갑, 가면, 화장 등을 이용하였는데, 주술을 통해 인간의 차원을 넘어선 변신의 세계에서 어떤 가능성을 찾게 되었던 것이다.⁹⁾ 초자연과의 융합을 위하여 착용되었던 가면은 석기시대 이전부터 성행하였는데¹⁰⁾ 주술과 고대연극에 주로 사용되면서 진보되다가 후대에는 국예술에서 사용되는데 불과하였지만, 가면예술은 색조화장문화를 파생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하였다.¹¹⁾ 한국, 중국, 일본의 가면에 사용된 색은 민간 신앙적인 면에서 설명된다. 붉은 색이 驅魔色으로 쓰인 것이 그 예¹²⁾로서 고대 가면이나 얼굴에 색을 입히는 행위에는 주술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던 것이다. 사람들은 신이나 정령들과 교류하고 그의 가호를 빌고 부탁하기 위해 보통 때와는 다른 용모를 하였는데 용모의 꾸밈은 의해에 있어서 매우 중요했다.¹³⁾ 화장의 기능에 있어서 주술적인 면은 고대로 갈수록 중요시되었으나 현대에 이르러 색조화장의 주술적인 기능은 거의 소멸되었다고 생각되어진다.

3) 標識 및 粉飾기능

색조화장을 시행하는 인간의 내면에는 화장을 함으로써 자신의 힘과 용기, 부를 과시하여 다른 사람과 구별이 되고자 하는 욕구가 내재되어 있다.

자신이 소속한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는 현대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원시사회에서도 존재하였다. 전투에서 몸에 펫자국이나 흉터를 가지고 돌아온 원시인은 이런 증거들이 전사로서의 그의 능력에 대한 무언의 상징이 되어 타인으로부터 존경을 받았을 것이며, 그것은 그가 자신의 능력을 상징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유도하였을 것이다.¹⁴⁾ 문신, 신체도색 등의 색조화장은 그러한 욕구를 어느 정도 해결해 주는 기능을 수행하였으며 전쟁에서 받은 흉터를 모방한 의도적인 흉터를 만들기도 하였고 펫자국과 유사한 진흙 오점과 가진 사람들이 사회집단 내에서 존경을 받았던 것이다.¹⁵⁾ 일본인은 화장을 포함한 치장에 있어서 신분이나 계급을 표시하고자 하는 동기가 강하였다. 모든 계급의 사람들이 똑같은 화장을 한다는 것은 사회제도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간주하여 허용하지 않고 많은 금지법을 창출해 내었다. 예를 들어 눈썹을 뽑고 이마 위에 새로이 눈썹을 그릴 수 있는 계급은 平安시대에는 기본적으로 귀족계급 뿐이었다.¹⁶⁾ 또한 입술연지를 질게 바르면 화류계의 여성같이 보이므로 武家의 여성들은 옆에 바르도록 권장¹⁷⁾되었는데, 이것 또한 신분의 차이를 분명히 하고자하는 움직임이었던 것이다. 화장행위는 계급과 신분을 나타내는 상징수단으로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화장 행위자의 연령과 성별을 표시해 주는 기능을 가지기도 하였다. 또한 江戸시대에는 20세에서 30세 사이의 아이가 있는 기혼녀는 눈썹을 완전히 제거하는 화장풍습이 있었다.¹⁸⁾ 눈썹제거 또한 여성의 다양한 감정표현을 통제함으로서 한 여성으로서가 아닌 남편과 아이에게 예속되어 있다는 그녀의 신분을 표시하기 위한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었다. 색조화장은 또한 특별한 상황을 표시하는 기능을 갖기도 한다. 예컨대 중국이나 한국에 있어서 미망인의 화장은 일반 부녀의 화장경향과 달랐음을 볼 수 있다. 중국의 경우 全時期를 통하여 행해진 것은 아니지만 어린 과부가 당시의 일반 부녀의 붉은 화장과는 달리 白粧이라 하여 백분 만을 사용하여 회색 단

장하는 화장법¹⁹⁾이 있었고 한국의 경우에도 朝鮮 시대에는 남편을 여읜 여자는 얼굴에 전혀 색조화장을 하지 않거나 하지 않은듯한 붉은 화장을 하였다. 과부임을 나타내는 것 이외에도 혼례의 상황을 나타내는 화장법은 중국, 한국, 일본 모두 平時의 화장과는 달라, 색조화장이 특수한 상황을 나타내는 기능을 하였던 것이다.

4) 실용적 기능

고대부터 가장 중요한 화장품으로 여겨져 온 백분은 비단 얼굴을 희고 아름답게 치장하는 기능만을 가진 것이 아니었고 피부를 보호하고 추위를 막아주며 자외선을 산란시키는 작용을 갖고 있다.²⁰⁾ 겨울에는 추위로부터 발의 피부가 거칠어지거나 갈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새와 짐승의 脂肪을 사용하기도 하였고 밤가루(粟粉)나 찹쌀가루를 화장품으로 사용하였는데²¹⁾ 이역시 미용효과만이 아니고 태양광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일본에서 고대부터 행해졌던 치 혹은 미적인 표현 이외에 충치를 예방하거나 치아를 물들이는 철장의 성분에 철분이 함유되어 있어 건강에 좋았다는 기능적인 목적²²⁾도 가지고 있었다.

III. 化粧品 및 使用法

1. 粉

한국과 중국 일본 삼국의 粉에는 크게 두 가지의 유형이 있었다. 하나는 쌀(米)이나 찹쌀, 밤 등의 곡식을 단순히 분쇄해서 만든것으로 “粉”字는 “쌀가루”라는 의미인 “米”자와 “分”자가 합쳐 이루어 진 것이며 통칭 미분(米粉)이라 불린다.

다른 하나는 백분에 비해 점성이 뛰어나 속침호분(胡粉)이라고 하는데 化鉛 즉, 납과의 화학처리를 통하여 만들기 때문에 통칭 연분(鉛粉)이라 한다. 漢代 史游의 「急就篇」 “芬薰脂粉膏澤箇”이

란 글에 대한 唐代 顏師古의 注에는 “분은 미분과 연분을 말하는데 모두 얼굴에 발라 얼굴을 빛나고 깨끗이 하는 것이다.”²³⁾라고 하여 분이 미분과 연분을 포괄함을 의미한다.

미분은 통상적으로 원형으로된 분 사발에 미즙을 가득 채워 침전시켜 얼은 깨끗하며 기름진 粉英을 태양에 건조시켜 둉어리로 만든다. 분의 둉어리를 갈아서 분말로 만들면 사용이 가능하다. 이것과 비교하면 연분의 제작과정은 약간 복잡하다. 「計然」「抱朴子」 등의 기록에 의하면 “연분은 일종의 엄밀한 화학처리를 거친 후에 생겨난 물질로 인조 안료의 하나”이다. 제조방법은 연석(鉛錫)과 초산(醋酸)을 섞으면 황단(黃丹)이 생성되고 다시 황단이 변화하여 끈적거리는 상태의 연분이 되는 것이다.

(1) 중국에서 백분이 최초로 사용된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견해가 있는데, 「墨子」에는 夏나라의 禹王이 분을 만들었다고 서술하고 있고 혹은 殷의 주왕대에 龍妃가 鉛錫을 태워 화장을 했다고도 하며 秦나라 시황제의 宮中에서는 모두 분을 사용하여 紅粧翠眉를 하였다는 기록도 있다.²⁴⁾ 漢代 이후 얼굴화장용의 연분은 수분을 제거한 이후에 분말 혹은 고체상태로 만들어 저장하였다. 연분은 미세하고 윤기가 있으며 깨끗하고 훨씬만 아니라 오랫동안 저장이 용이하기 때문에 부녀자들이 매우 좋아하였다.²⁵⁾

(2) 한국인들은 일찍이 백색피부를 선호하였고, 미남·미녀를 尊崇하는 생활사상을 가진 때문에 아름다움과 청결을 중시하였다. 중국의 문헌에 百濟인들은 “施粉無朱”²⁶⁾라 표현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百濟시대에 분사용이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있어 三國時代 및 그 이전에 백분을 사용했을 것으로 유추된다. 新羅인들은 일찍이 백분에 납을 화학 처리한 연분을 제조, 사용하였다. 高麗여인들은 연지는 칠하지 않았어도 분은

바름으로써²⁷⁾ 화려하지 않으면서 고운 顏色을 선호하였던 것 같다. 그러나 분대화장이라 하여 기생들은 진하고 야한 화장을 즐겨하여 분을 도포한듯이 하얗게 발라 일반부녀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²⁸⁾ 朝鮮시대의 일반부녀는 기녀의 화려한 분대화장을 기파하여 자연스러운 피부색을 표현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일본에서 백분은 처음에는 중국왕조의 조공에 의해서 직접 대륙으로부터 들어오거나 혹은 한국을 통해서 교역에 의해서 전래되었기 때문에 극히 귀한 것이었다. 일본산의 백분이 만들어지게 된 것은 훨씬 후대인데 지통천황(持統天皇: 690~697)에 이르러서이다. 발명자는 元興寺의 승려인 觀成으로 女帝인 지통천황에게 연분을 바쳐 그녀를 기쁘게 하였고²⁹⁾ 그는 그 공로로 인해서 綿, 布 등의 포상을 받았다³⁰⁾고 전해진다. 이후로 대륙의 비싼 연분을 사용하지 않아도 쉽게 일본산의 백분을 구할 수가 있게 되었다고 한다. 당시 일본에는 연분 외에 칡쌀로 만든 백분이 있었다.

일본에서는 연분 외에 수은으로 만든 이세백분(伊勢白粉)이 제조되어 널리 사용되었다. 납을 원료로 한 연분은 ‘はふに’라고도 하고 京白粉으로 알려져 있으며, 수은을 원료로 하는 것은 ‘はらや’ 또는 이세분으로 불렸다.³¹⁾

분을 사용하는 주체는 거의 궁중, 제후의 부녀, 배우, 기생 등이어서 제품의 명칭도 궁에 현상되는 백분, 大夫艷白粉, 무대백분 등으로도 잘 알려졌다. 당시에는 중국제 또한 일부 사람들에게 크게 환영되어 “南京お艷白粉”的 이름으로 매출되었다.

2. 연 지

연지는 “焉支”, “燕支”라고도 쓰는데 그것은 일종의 홍색 안료로 여성 얼굴화장의 주요 용품이다. 隋代 崔豹의 「古今注」에 “연지는 잎이 삽주와

〈표 1〉 中國婦女의 脂粉 使用法

名稱	化粧法	備考
도화장 (桃花妝)	백분을 먼저 바른 후에 연지를 칠한다.	연지의 위치가 대체로 양뺨에 집중되어 양뺨에 많은 홍색이 나타나며 이마와 다른 부분의 백분이 노출됨으로써 뺨의 홍색이 강조된다. 젊은 부녀에게 애용되었다.
단훈장 (檀華妝)	화장전에 미리 연지와 분을 조합하여 분이 홍색이 된 후에 직접 얼굴에 바른다.	얼굴화장전에 미리 조합하여 안료를 만들면 색채가 비교적 통일되고 얼굴부분에 색이 고루 퍼지기 때문에 장중하고 우아하며 친착한 감각을 준다. 중년이상의 부녀들에게 애용되었다.
비하장 (飛霞妝)	먼저 얼굴에 연지를 한층 바르고 난 후에 백분을 그 위에 가볍게 바른다.	노인들에게 비교적 적합하다.

비슷하고 꽃은 민들레(蒲公)와 비슷하며 西方에서 생산되는데 원주민들이 염료로 사용했기 때문에 명칭이 연지가 되었다.³²⁾고 하여 연지라는 명칭의 유래가 붉은 화장료 원료인 홍화의 주생산지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에서 西方이라 함은 중국 서북의 흥노지구로서, 오늘날 甘肅省 鄭連山區의 연지산(焉支山) 아래이다.

(1) 중국에서는 홍화를 紅藍이라고도 하는데, 紅藍은 홍색과 황색 두 종류의 색소를 포함하고 있어 연지를 제작하려면 반드시 그 속에 있는 黃汁을 제거하고서야 비로소 홍색의 액체를 만들 수 있다. 부녀자들이 화장에 쓰는 연지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솜뭉치에 紅藍花의 줍을 적셔서 만들어서 “絲燕支”라고 부르고, 다른 하나는 작고 얇은 花片으로 가공하여 “金花燕支”라고 부른다. 두 가지의 연지는 모두 반드시 음지에서 건조한 후에 사용할 때에는 소량의 맑은 물에 적셔야만 곧 바를 수 있다.³³⁾

漢初 이후 중국부녀의 화장은 풍부해지기 시작하였는데 그것은 연지의 운용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연지는 분과 조화시켜서 사용하였는데 뺨부위 안색이 너무 회지 않도록 하는데 사용하였다.³⁴⁾ 漢代 이후 부녀자의 붉은 화장법은 나날이 증가하여 중국 부녀자들의 화장은 대체로 연지와 분이 병용되는 것이었다. 연지와 분을 이용하여 얼굴색을 표현하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표 1〉의 세가지³⁵⁾로 나누어진다.

(2) 高句麗 수산리 고분벽화와 쌍용총 고분벽화에 그려져 있는 여자들은 뺨에 연지화장을 하고 있다. 「三才圖會」에 일본이 百濟로 부터 화장품과 화장기술을 익혀 비로소 화장을 하게 되었다는 기록과 중국문헌에 百濟사람의 화장경향이 “施粉無朱”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百濟인의 화장기술이 세련되고 발달했으며 분을 발라 얼굴빛은 가다듬되 연지는 바르지 않아 중국인의 화장에 비해 얇은 경향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³⁶⁾ 4~5세기경에는 高句麗에서 주사로 연지를 만들어 사용하였고, 그 기술이 뛰어나 중국에서 제조법을 배워가기도 하였다.³⁷⁾

新羅인들은 연지를 만들어 볼과 입술을 치장하였는데 홍화로 만든 것³⁸⁾이었다. 燕國이 주산지였던 홍화가 중국을 통하여 三國時代에 이미 전래되었던 것이다. 統一新羅에서는 백분에 붉은색을 염색한 색분을 제조하여 연지와 함께 볼연지로 사용하기도 하였다.³⁹⁾ 분에 연지를 섞어 화장을 하는 것은 唐代에 성행하였던 “단훈장”的 방법으로 唐과 統一新羅의 연지화장법의 유사성을 짐작케 한다.

朝鮮시대의 풍속에 대한 기록 가운데에 “분바른 낯은 불그레하고 회어서 발에 얼비치었다.”⁴⁰⁾는 내용으로 보아 朝鮮시대의 여성들은 백분에 연지를 혼합하여 피부색과 비슷한 복숭아색을 즐겨 발랐다⁴¹⁾는 것을 짐작 할 수 있다.

(3) 일본에서는 홍화전래 이전, 홍색의 화장료로서 주단(朱丹)을 신체에 발랐다. 주단은 적갈색의 塗土이다. 景初 3년 6월 왜국여왕 卑彌呼가 대

부 難升米 등을 魏의 수도 낙양에 보내어 조공하였을때 明帝는 倭國의 공물에 대한 보답으로 특히 여왕에게 진주(眞珠)와 연단(鉛丹) 각 50근을 하사하였는데, 연단은 황단(黃丹)이며, 진주는 천연의 진사(辰砂)에서 채취하는 흥색안료이다. 진사는 단사(丹砂)라고도 하는데 「本草綱目」에 의하면 四川省 陵縣 州의 山谷을 중심으로하여 기타 河南省 臨縣이나 남쪽의 廣州 등에서 채취된다⁴²⁾고 하였다. 이것을 채취하려면 數丈의 깊은 구멍을 뚫고 암석을 깨고 그 속에서 나오는 진사를 찾아내어 분쇄하는데, 이것을 부수면 선홍색이 되어 안료⁴³⁾가 되는 것이다. 그후 일본에서는 이세국에서 수은이 발견되었지만 그 산출량은 극히 적었으며 중국과 같이 주사(朱砂)에서 진주를 채취하는 좋은 광산은 전혀 없었다. 중국에서도 진주의 용도가 증가하면서 천연의 진주는 생산량에 한도가 있어서 약용이외의 붉은 안료는 인공으로 제조하게 되었다. 적색안료로 극히 중요한 것은 수은과 유황의 화합물인 은주(銀朱)이다. 진사광(辰砂鑛)을 분쇄한 것에 石灰를 혼합하여 강한 열을 가하여 얻어진 수은을 鐵鍋 속에서 유황과 함께 넣어서 가열하여 산화시키면 붉은 색의 가루가 된다. 이것을 水簸하여 건조한 것이 은주인데, 은주는 高價여서 보통의 흥색안료는 은주에 연단이나 酸化鐵 등을 혼합하여 사용한다. 연단은 납에 土硫黃·硝石 등을 혼합하여 鐵鍋에서 용해하고 식초를 섞어서 열을 가하면 적색의 연단이 만들어지는데 일본 부녀의 붉은 화장료로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이 은주와 연단이다.⁴⁴⁾ 江戶시대에는 뺨에 연지를 바르기는 하였지만 짙은 화장을 기피하였다. 「女用訓蒙圖彙」에 의하면 “뺨에 연지를 바르는 것은 樓의 花……적색은 없게 하고……”라하여 짙게 화장하는 것을 천박하게 여기고 있는데⁴⁵⁾ 이것은 明·清시대나 朝鮮시대 여성화장의 경향과 일맥 유사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여진다.

3. 眉 墨

(1) 중국 부녀자들이 눈썹을 그리는데 사용한 재료는 “석대(石黛)”라는 광물로 간단히 “대(黛)”라고 칭한다.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먼저 돌벼루(石硯)에 갈아서 분말을 만든 후에 물을 섞는다. 漢代의 눈썹벼루(黛硯)는 중국 남북각지의 漢墓 속에서 항상 발견된다.

隋·唐이후 부녀자들이 눈썹을 그릴 때 나대(螺黛)를 많이 사용하였는데 소위 “나대”라는 것은 일종의 가공과 제작을 거쳐 각종의 고정적인 형상을 하고 있는 먹덩어리로 사용할 때에는 둘에 담그기만 하면 곧 쓸 수 있어서 갈거나 파쇄할 필요가 없어 석대에 비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 나대의 모양은 봇글씨용의 먹덩어리와 비슷하다. 宋代에 색이 좋고 섬세하며 사용이 편리한 연묵(烟墨)이 발명되어 나대를 대신하여 사용하게 되었다.⁴⁶⁾

눈썹을 그리는 풍습은 일찍이 周王朝에서 시작되었다고 보여지는데 출토된 문물에서 보면 先秦 시대 눈썹을 그리는 방식이 비록 두께와 굴곡이 같지는 않지만 모두 긴 눈썹을 위주로 하였다.⁴⁷⁾

漢代 무제시기 궁중의 부녀자들은 팔자눈썹을 주로 그렸다. 원제 때는 수미(愁眉)가 출현하였는데, 소위 수미는 그 형식에서 西漢의 팔자눈썹과 비슷하고 긴눈썹의 일종에 속한다. 긴눈썹 형식은 先秦에서 東漢末까지 유행하였고 이처럼 가늘고 긴 눈썹은 대부분 원래의 눈썹을 제거한 후에 다시 그렸는데 그렇지 않으면 효과있게 그리기가 매우 어려웠기 때문⁴⁸⁾이었다. 後漢末期에는 눈썹털을 모두 각아 없애고 다시 먹으로 눈썹을 그리는 풍습이 이때부터 일반화되어 초승달 모양의 가는 눈썹형이 대 유행하였다.⁴⁹⁾ 漢代 부녀자들은 긴 눈썹뿐만이 아니고 넓은 눈썹 또한 즐겨 그렸는데, 이것을 “廣眉”, 혹은 “大眉”라 칭하였다. 이런 기풍은 장안성 안에서부터 발생하여 점차 각자로 전파되었다.⁵⁰⁾

唐代에 있은 눈썹양식의 가장 큰 변화는 전대에 비하여 闊眉위주의 눈썹양식이라는 것이다. 긴 눈

썹은 많이 보이지는 않고 일반적으로 버드나무잎과 같이 그려 “柳眉”, 혹은 “柳葉眉”라고 하였다.⁵¹⁾ 柳眉에 비교할 수 있는 것이 구부러지게 묘사된 눈썹양식인데 그 구부러진 형상이 마치 초승달과 같아서 이름이 “月眉” 혹은 “却月眉”라고 한다.⁵²⁾ 唐현종 元和 년간에 “八字眉”가 또한 다시 새롭게 유행하였다. 이런 양식은 원래 西漢시기의 눈썹양식으로 中唐시기에 이르러 다시 사람들에게 매력을 주어 궁중은 물론民間에까지 모두 보편적으로 받아들여 유행되어 당시에는 “元和시기 세상의 화장”이라고 칭하였다.

宋·元시기의 눈썹양식은 눈썹털을 통으로 두께가 넓은 달모양으로 그려서 한쪽 끝에서 봇으로 그리는데 진한 곳에서 얕은 곳으로 점차 외부로 분산시켜 사라지게 하는 형태이다.

明·清 양대의 眉式은 섬세하고 곡선적이어서 자못 수려한 기풍의 여성미를 갖추었다. 明·清시기 부녀자들은 뛰어나게 아름다운(秀美) 것을 숭상하여 눈썹털이 많게 그려 섬세하고도 굽도록 하였으며 長短과 深淺 등의 기교변화는 차츰 감소하였다.

(2) 한국은 중국에 비하여 여성 눈썹화장에의 관심은 한층 덜한 것으로 보여진다. 한국에서의 눈썹화장품에 대한 기록은 新羅시대로 거슬러 찾을 수 있는데 그 이전의 눈썹 화장품의 유무는 알 수가 없다. 新羅시대의 눈썹화장품으로는 미묵(眉墨)이 있었는데 이는 나뭇결이 단단한 굴참나무, 너도밤나무 따위의 나뭇재를 油煙에 개어 만들었으며 눈썹그리기에 사용하였다.⁵³⁾ 朝鮮시대 눈썹먹의 재료로는 관솔먹, 달개비 꽃잎 태운 재, 버드나무, 굴참나무, 밤나무의 목탄, 목화꽃 태운 재, 참깨 그을음이었고 원료에 따라서 검정색, 검푸른색, 짙은 밤색, 회색, 자색의 다양한 색이 들어졌다.⁵⁴⁾ 대체로 식물을 태워 만든 재료는 기름에 개어야만 점착력을 발휘했던 것 같다. 굴참나무와 밤나무의 목탄을 칠할때에 가루가 떨어지는

결점이 있으므로 관솔에서 나오는 油煙을 받아 평지씨 기름에 개어 사용하였고 목화의 자색 꽃을 태운 재를 유연에 묻혀 참기름에 개기도 하였으며⁵⁵⁾ 일반 빈농에서는 아궁이의 숯 검댕이나 보리깜부기를 이용하기도 하였는데 이것은 쉽게 지워지는 결점⁵⁶⁾이 있었다. 미묵중 가장 고급스러운 것은 松煙墨으로 반죽먹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는데, 달개비의 꽃잎 태운 재를 胡麻油로 개고 여기에 油煙과 흥·금(紅金)가루를 적당량 개어⁵⁷⁾ 사용하였다.

新羅는 百濟·高句麗보다 다소 늦게 문화를 발전시켰지만 화장면에서는 두나라보다 앞섰다 그런데 「新唐書」⁵⁸⁾에 의하면 新羅여성들은 화장을 하지 않고 눈썹 그리기를 즐기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統一新羅에 이르러 문무왕 4년에 “부녀의 모든 복장을 唐과 동일하게 하라”⁵⁹⁾는 교지가 내린 뒤, 의상과 함께 중국 여인들의 짙은 색조화장이 도입되어 前代에 비하여 화장이 화려해졌다.⁶⁰⁾ 高麗시대의 눈썹화장의 한 기법으로 “이마의 반을 가리는 벼들형의 눈썹”⁶¹⁾이 성행하였다고 하는데 이마의 반을 가린다는 것은 다소 과장적인 표현이었겠지만 넓은 곡선을 이루는 모습이었을 것으로, 唐代 낙엽형의 넓은 눈썹 형태와 유사하였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그러나 시종 넓은 눈썹을 즐겨 그렸던 것은 아니고 화려한 분대화장에서는 원래의 눈썹을 뽑아 가늘게 가다듬은 뒤에 다시 또렷하게 그려주는 눈썹화장을 즐겨하였다.⁶²⁾ 高麗 여인의 눈썹화장은 넓은 곡선형의 눈썹과 가늘고 선명하게 강조하여 요염하게 표현하는 기법이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후자는 기생에게서 주로 행해진 방법이었다.

朝鮮시대의 눈썹화장은 다른부위의 화장보다 수정이 쉬워 눈썹술이 너무 많으면 뽑아서 연하게 해주고 솔이 너무 적으면 진하게 그려 주었고 눈썹길이도 수정하였다. 눈썹의 곡선은 당시 벼들눈썹이 유행이었으므로 눈을 중심으로 약간 휘게 그려주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었다.⁶³⁾

(3) 일본여성의 화장법 중 눈썹화장은 미용의 美醜에 가장 크게 관계가 있었던 것 같다. 黛라는 것은 ‘眉墨’의 뜻으로 「和名抄」에서는 “黛는 눈썹을 그리는 먹이다.”라고 하여 ‘눈썹을 그리는 청혹색의 먹’을 말하는 것이었는데, 후에는 의미가 바뀌어 ‘눈썹을 그리는 것’을 말하게 되었다. 눈썹을 그리는 것을 예전에는 「眉作」, 혹은 「眉引」이라 하였고 눈썹을 제거한 위에 黛로 아름답게 그리는 것이었다. 이것을 「かきまゆ」라고 하였는데 중세 이후 여자들만이 아니라 공경·무사까지도 행하게 되어 「平家物語」에 보이는 “평씨의 黛” 이야기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이다. 눈썹의 형태는 다양한 양식으로 발달하여 三日月, 驚眉, 霞眉, 岸立眉, 唐眉⁶⁴⁾라는 명칭이 있었다.

미묵으로서는 고대에는 겉푸른 흙에 약간 붉은 기가 섞인 것을 사용하였고, 중세 이후에는 松煙墨이 이용되었다. 상류층의 부인들이 사용한 미묵은 捏墨이라고 불리는데 紫草 花의 黑燒·油煙·金粉을 호마유에 이겨서 만들어 이것을 상아의 (참빗)에 볼였다고도 한다. 근대가 되면 油煙墨이나 보리의 黑穗등이 많이 이용되었다. 蠟脂에 유연을 고아서 합친 것으로 桐(오동나무)이나 코르크의 墨을 주성분으로 하여 분말, 棒狀, 固形의 세 종류가 만들어지기도 하였고⁶⁵⁾ 색도 검은 것 외에 약간 茶色을 띠는 것 등이 있다. 기법은 원래 눈썹이 영성한 경우에 그리거나 혹은 그 눈썹형태 그대로 그리기도 하였고 또는 털이 난 언저리를 보충화장 하여 눈썹의 형태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 행하였는데, 黛를 사용하는 것은 美顏法으로서 중요한 것이었다. 그렇다고 하여도 눈썹을 질게 화장한다는 것은 부자연스런 것으로 엷은 경향을 띠었다.⁶⁶⁾

눈썹을 그리는 방법은 매우 세심하였는데, 그 대체적인 방법은 본래의 눈썹을 쪽집게로 뽑아서 없애버리고 먹으로 인공적으로 아름답게 눈썹을 그리는 것이었다. 이 풍습은 唐人의 화장을 모방하여 귀족층의 부녀자들 사이에서 시작되었던 것

으로 유행의 초기에는 대륙의 전통대로 행해져, 推古朝 아래 이 가늘고 긴 눈썹을 미인으로 하여 王朝시대에는 가장 널리 행해졌으나⁶⁷⁾ 平安시대에는 귀족문화의 발달과 함께 눈썹화장은 새로운 발전을 맞아 확실하게 눈썹을 뽑는 화장법으로 변한다. 눈썹을 뽑고 이마의 위쪽으로 눈썹을 그리는 것으로 눈썹이 자연스러운 위치에서 이마 위에 까지 올라가 이마의 머리털이 난 자리까지 올라간 경우를 많은 회화자료에서 볼 수 있다.⁶⁸⁾ 鎌倉시대에는 壓染(渲染)의 풍습이 생겨나고 일자눈썹을 하였으며 아래가 반원이 되도록 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고⁶⁹⁾ 實町시대에는 눈썹형태에 많은 기호가 생겨서 남자는 橫眉를 하고 여자는 茫茫眉, 소년은 팔자미, 桃眉 등을 그렸다.⁷⁰⁾ 江戸시대가 되면 눈썹을 완전히 깎아서 없애는 풍습이 유행을 하게 된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서 행해졌던 것은 아니고 기혼의 여자들에게서 시행된 화장 풍습으로 눈썹이 없는 것이 아이가 있는 기혼의 여자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⁷¹⁾ 눈썹을 깎아내는 풍습은 明治시대에 들어와 도시를 중심으로 서서히 사라져 갔다.

4. 입술연지

(1) 중국 부녀자들의 얼굴화장중에 입술을 그리는 습속은 고대부터 있어왔다. 그 당시 사용된 입술연지의 주요 원료는 丹이다. 「釋名」釋首飾에 “脣脂는 丹으로 만들어 입술처럼 붉다.”라고 되어 있다. 丹은 홍색의 광물질의 안료로 또한 주사(硃砂)라고 하며 그것으로 입술연지를 만드는데 설명하고 강렬한 색체의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주사는 점성이 없어 만일 그것을 입술에 바르려면 매우 빨리 입술위에 바를 액체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주사 속에다 적당량의 둥물기름을 첨가하여 제조하였고 이것은 防水의 성능을 갖추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색체가 있는 광택을 첨가하여 일종의 이상적인 화장용품이 되었다. 주

사 이외에 입술연지는 胭脂로 대체되었다.⁷²⁾

중국 부녀자들의 입술 그리는 양식은 일반적으로 교소농염(嬌小濃艷)을 가장 좋아하여 구체적인 형식은 매우 다양하였지만 이 기본적인 특징은 유지되고 불변하였다.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입술형태로 인정하는 것은 앵두와 같이 아름답고 작으면서도 선명하고 절은 모양이다. 白居易의 家伎인 번소(樊素)의 입술이 이런 특징을 갖추고 있다고 하여 “앵도같은 번소의 입술”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입술의 그러한 형태가 선호되어서 부녀자들은 화장을 할 때에 항상 원래의 입술위에 화장한 후, 다시 진지를 거듭해서 발라 새롭게 입술을 그렸다.⁷³⁾ 明·清 교체기의 입술양식을 보면, 윗 입술은 극히 얇게하고 아래 입술은 요염하고 작은 원형으로 나타냈는데 이는 清初期 입술을 그리는 전형적인 방법이었다.⁷⁴⁾

(2) 한국에서 입술에 붉게 화장을 하기 시작한 것은 三國時代 혹은 그 이전으로 추정이 되는데 수산리 벽화와 쌍영총 벽화의 여성들이 붉게 입술을 바른 것⁷⁵⁾에서 알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의 재료가 연지였을지에 대해서는 확실치가 않다. 중국에서 연지를 얼굴화장에 사용한 것은 漢代이지만 그것을 입술에 바르기 시작한 것은 唐代에 이르러서이고 그 이전에는 단주 등의 다른 재료를 사용하였는데, 한국에서 일본에 흥화를 전파한 것이 高句麗시대이므로 중국에서 연지를 입술에 운용하기 이전부터 高句麗에 연지가 있었기 때문에 입술화장에 연지를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으나 高句麗시대에는 주사로 연지를 만드는 제조술이 발달하고 있었으므로 당시 입술연지의 재료는 주사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입술에 연지를 바르는 풍속은 統一新羅시대에 보편화되었다고 보아지며 高麗시대에는 성행하지 않다가 朝鮮시대에 다시 성행하였다.⁷⁶⁾

(3) 일본에서도 입술연지는 여성의 주요 화장품이었다. 平安시대가 되면 입술연지는 낮은 계층의 부녀자들까지도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榮華物語」권 제19「御著裳」⁷⁷⁾에 “젊은 여자들이…… 치혹을 하였는데 입술은 빨갛게 하였다”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다.

唐代 입술화장의 풍속이 일본에 전해진 것인데 당시 미인의 풍속을 그려놓은 正倉院屏風그림 樹下美人的 입술은 이 입술연지가 칠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平安시대 부녀자들 사이에 이 입술화장의 풍속이 유행하였다는 것은 당시의 생활을 그리고 있는 「源氏物語」, 「榮華物語」 등에 입술연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⁷⁸⁾에서 알 수 있다. 일반 사회에서 뺨에 연지를 바르는 것이 쇠퇴하면서 입술에 바르기 시작하였다. 「釋名」에 “입술연지는 丹으로 만들고 입술을 붉게 그리는 것이다”라 하였고 부인의 입술이 아름다운 것을 「丹花의 입술」로 꽃에 비유하여서 붉은 것을 귀하게 여겼지만 붉은 것이 지나치면 천박한 것으로 여겼다. 그런데 鎌倉 중기가 되면 입술의 색은 짙게 되는데, 아래 입술을 윗입술보다 짙게 칠하였다. 후기가 되면 이러한 경향이 심화되어 아래입술은 더욱 짙게 되고, 본 바탕에 墨을 칠한 것처럼 되었다. 「守貞漫稿」에 “부녀의 脣紅은 眞鑑色으로 한다. 江戸시대도 문화 10년 정도까지는 그와 같았다. 처음에는 짙은 입술색에 대해 입술의 색이 玉蟲과 같이 빛이 좋다고 하였는데 후에는 너무 짙은 것을 싫어하게 되었다. 먼저 墨을 바르고 그 위에 연지를 바르면 연지를 많이 쓰지 않고도 真紅色의 빛이 난다. 玉蟲과 같이 푸를 정도로 짙게 바르는 것을 속칭 검푸르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筋色紅也이다. 푸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당시의 상태를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

1) 곤 지

한국여성 이마의 부분화장인 곤지의 유래에 관해 「규합총서」⁷⁹⁾에서는 “宋 수양공주의 매화장으로부터 곤지찍는법이 생겼다”고 하여 唐代 부녀자들 사이에서 성행하였던 花鉢의 기원과 함께 하고 있다. 곤지가 화전의 일종이라는 것은, 新疆吐魯番唐墓에서 출토된 泥俑의 두 여성은 한국여성의 혼인화장 양식에서 보여지는 연지 곤지의 화장법과 거의 유사한 圓點形화전의 화장을 하고 있고 당대부녀의 화전양식 가운데에 가장 기본적이고 단순한 유형이 圓點形의 화전이었다는 사실에 맥락을 둔다. 그러나 한국에서 곤지의 기록이 처음으로 보이는 것은 高句麗시대로 「三國史記」⁸⁰⁾에 高句麗 남자 무용수들이 곤지를 찍었다는 기록이 보이고, 高句麗 수산리 고분벽화에서도 이마부분이 손상되어 확실히는 알 수 없으나 불의 연지와 함께 곤지의 흔적이 나타난다. 그런데 화전의 유래가 南北朝무렵이라고는 하지만 여성들 사이에서 보편적으로 성행을 하게 된 것은 唐代에 이르러서이고⁸¹⁾ 원점의 화전양식 또한 唐代의 유물로 부터 보여지는 바 시기적으로, 한국의 곤지와 화전을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할지는 앞으로의 연구문제로 남는다. 중국의 화전이 이마의 일상적인 부분화장임에 반하여 한국의 곤지는 연지와 함께 혼인화장의 한 양식으로 변형되는데 이것은 한국의 혼속에서만 나타나는 독자적인 화장문화이다. 곤지가 일반화장이 아닌 혼인화장으로 정착하게 된 유래는 수로왕의 건국신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수로왕에게 시집오기 위하여 허황옥은 천 대추와 복숭아를 바다로부터 얻어오게 되는데, 이것은 허황옥이 바다의 주인인 주인씨로부터 혼인을 인정받는다는 의미가 약식화 되어 연지·곤지로 변형되었다⁸²⁾고 한다. 화전이 주로 미적인 표현의 목적을 가지는데 반해 곤지는 혼인의 증표로서, 허혼과 음양 조화의 의미를 가진다는 점과, 원형화전이 다양한 색상을 가지고 있지만 곤지는 시종붉은색만을 취한다는 점으로 미루어 곤지를 화전

으로 단정짓기는 곤란한 점이 있다.

곤지의 원료는 연지와 동일하여 개화한 홍화를 새벽에 따서 절구에 쟁고 베로 짜서 그늘진 곳에서 천천히 말려 가루로 만들고, 다시 물뿌려 말리는 과정을 반복하여 체로 친 후에 환약으로 만들었다.⁸³⁾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없는 가정에서는 붉은고추를 말려서 한쪽에 한지를 덧대고 등글게 오려 양불과 이마에 붙였다⁸⁴⁾고 한다.

2) 頷 黃

황색안료로 이마에 그리기 때문에 “아황(鵝黃)” 또는 “아황(鵝黃)”이라고도 하는데, 부녀자들이 이마 부분에 황색을 칠하는 것은 南朝시기 이후 유행한 풍습으로 불교의 유행과 관계가 있다. 南北朝시기 불교는 중국에 도입되어 전성기였는데 전국 각지에 사원이 크게 흥하여 大江 남북에 석굴이 널리 개착되어 승불의 열기가 대단하였다. 부녀자들은 금을 칠한 불상에서 힌트를 얻어 자신의 이마에 황색을 칠하게 되었고 시간이 오래 지나 黃額의 풍습이 형성되기에 이르렀다.⁸⁵⁾

문헌기록을 보면 고대 부녀자들이 이마 부분을 누렇게 화장하는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다. 하나는 염화(染畫)로서 그림붓으로 황색의 염료를 묻혀서 이마 위에 칠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칠진 것을 블어서 완성하는 방법이다.⁸⁶⁾

염화법(染畫法)에 비하여 점첩법(黏貼法)은 비교적 간편하다. 이런 頷黃은 일종의 황색재료를 써서 얇은 편 상태의 수식물을 만들어 사용할 때에 아교물에 적셔서 이마에 붙이는 것이다. 각종의 꽃모양으로 자를 수 있었기 때문에 또한 “花黃”이라고도 하였다. 엄밀한 의미로 말한다면 그것은 이미 액황의 범위에서 벗어나 곧 화전의 형태에 많이 근접하고 있다.⁸⁷⁾ 여자들은 또한 흔히 노란색 연고로 칠한 초승달 모양의 더 큼직한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점을 덧칠했다. 이 점은 황성엽(黃星靨) 혹은 미간황(眉間黃)이라고 불렸다. 이 풍조는 明나라 말기까지 계속 되다가 清나라

시대에 와서 없어진 것 같다.⁸⁸⁾

한국에 있어서 이러한 액황의 화장법에 관한 기록은 朝鮮시대에 이르러서 찾아볼 수 있다. 「芝峯類設」에 鴉黃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는데, “상고하여 보니 요즘 궁녀들의 누런 눈썹, 黑丹粧의 법은 唐代에 이르러서도 그려하였다.”⁸⁹⁾고 하여 唐代 액황화장 풍습이 朝鮮에서 시행되었음을 말해준다. 눈썹을 그리기 전에 눈썹주변에 황색을 발라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모습이 되게 하였는데 액황을 그리는 것이 특히 궁녀들 사이에서 유행을 하였던 것 같다.⁹⁰⁾ 한국의 궁녀들 사이에서 주로 유행을 하였던 액황은 중국의 그것과는 유행된 시기에 있어서 상당히 차이가 날 뿐만이 아니라 唐代의 액황이 이마에 주로 시행된 것이라면 朝鮮시대에는 눈썹주변에 국한된 것이어서 시행된 부위와 방법이 같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3) 花 鋏

일종의 이마 장식으로 唐代에 이르러 부녀자들 사이에 보편적으로 행해지게 되었다. 각종 꽃잎의 형상으로 제작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매화꽃 모양이 가장 많다. 뿐만 아니라 복잡하고 다양한 각종 도안이 있었는데 어떤 형태는 牛角과 비슷하고 어떤 형상은 扇面과 비슷하며 어떤 것은 또 복승아를(和挑子) 모방하였는데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각종의 추상적인 도안으로 묘사되었고, 성글고 조밀하거나 크고 작은 것이 만들어져 이런 화전을 이마에 붙이면 하나의 꽃잎을 붙인 것⁹¹⁾ 같은 형상이었다.

화전의 색채는 액황에 비하여 풍부하고 많았다. 액황은 일반적으로 단지 한가지 색만을 사용하는데 반하여 화전은 많은 색이 쓰였는데 화전의 색채는 통상적으로 재료자체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금박은 금색, 흑광지는 흑색, 어시골은 백색이었다. 또한 각종의 안료로 염색이 가능하였는데, 가장 채색이 정밀한 것은 “翠鋏”으로 그것은 각종 물총새의 깃털로 제작하는 것이었다.

화전을 붙이는 膠水는 주로 아교이다. 화전을 붙이는데 사용된 아교는 북방에서 나는 것으로 어포(魚鱠)로 만드는데 점성이 아주 뛰어나 화살에 깃털을 붙이는데 사용하는 것이었다. 화전을 지울 때는 뜨거운 물을 사용하면 곧 벗어졌다⁹²⁾고 한다.

4) 斜 紅

부녀자들의 뺨에 행하는 부분화장이다. 唐代 朝안에서 출토된 女俑의 뺨부분 양쪽에는 홍색의 달모양으로 장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장식은 색채가 매우 짙고 모습은 괴이하여 멀리서 보면 회고 깨끗한 뺨위에 양쪽에 상처 흔적이 있는 듯하다. 그래서 이런 장식이 “사홍”이라는 이름을 얻은 것이다. 唐나라 元稹의 「有所教」라는 시에 “사홍은 상처가 있는 듯하나 상처가 난 것은 아니다.”라든가 羅虬의 「比紅兒詩」에 “진하게 홍색을 얼굴에 바른 후에 뺨 옆을 긋는다”라는 것은 모두 이런 화장을 읊은 것이다.⁹³⁾

5) 面 髪

뺨의 보조개 있는 부위의 화장을 말한다. 고대에는 이름을 “的”이라 하였다. 漢代 劉熙의 「釋名」「釋首飾」에서 “丹(붉은 것)으로 얼굴에 칠하는 것을 的이라 한다”라 한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한다. 부녀자의 뺨위에 的을 바르는 것을 말한 것에서 원래는 결코 장식을 위하였던 것은 아니었고 궁정생활중 일종의 특수한 표기였던 것이다.⁹⁴⁾

면엽의 시행방법은 통상 연지로 점을 칠하는 것으로 화전과 같은 방법으로 행하였는데 금박이나 翠羽(물총새 깃털) 등의 물질로 黏貼하여 만들었다. 면엽의 구체적인 형상은 盛唐 이전에 일반적으로 黃豆般의 두 개의 원점을 찍는 것인데 元黏의 「恨妝成」이라는 시에 “얼굴에 둥근 보조개(圓鬚)를 그린다”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다. 陝西省 西安, 新疆省 吐魯番 등지의 唐墓에서 출토된 女俑은 뺨부분에도 면엽의 화장이 많이 나타나 있다.⁹⁵⁾ 盛唐 이후에는 면엽의 범위가 확대되고 양

식도 또한 풍부하여져서 어떤 것은 錢幣와 같아 “錢點”이라 칭하여 지고 어떤 것은 杏桃(살구와 복숭아)와 같아 “杏臘”이라고 하였다. 이런 상황은 출토된 唐俑에 명확히 반영되어 있는데 花卉 도안에 불과하고 입가에 일정치 않게 그려졌고 또한 뜻날 양측에 그려져서 원래 부위보다는 약간 높은 것⁹⁶⁾을 보여준다.

晚唐 五代 이후 경제, 정치 등의 원인으로 중국의 복장형태가 점차 변화하여 고지식하여지고 보수적이 되었으나 부녀자들의 장식의 기풍은 오히려 증가하기만 하였고 근검하지 않았는데, 많은 회화자료에서 보면 이 시기의 면엽장식은 더욱더 유행하여 전통적인 원점의 花卉 형태뿐만 아니라 鳥獸 도형으로 증가하였고 어떤 것은 심지어 이런 꽃문양의 첨(貼)이 뺨가득이에 모두 그려져 있는데 敦煌 벽화는 이런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⁹⁷⁾

6) 齒 黑

涅齒라고도 한다. 고대 일본에서 행해졌었던 치혹의 풍습은 平安朝 初期 아래 다시 행해져 각종의 문헌에도 남아 있는데 白河·鳥羽 두 上皇 때가 되면, 백분과 함께 여성의 유행하는 화장풍습으로 상류층에까지도 이용되고 있었던 듯 하고 젊은 궁인들 사이에 유행하였던 것 같다. 그리고 다른 색조화장 행위와 마찬가지로 치혹 또한 일정한 연령에 다달았을 때 시행되었던 것 같다. 鐵片을 술(酒)이나 식초(酸)속에 담근후 적당량의 물을 가해 밀폐시킨후 뜰마루나 마루밑에 넣고 수개월이 지나면, 불쾌한 냄새를 가진 갈색의 액체가 된다. 이것을 “鐵漿沸”라고 불리지는 놋쇠그릇에 넣고 끓여서 완성시킨다.⁹⁸⁾ 이렇게 만들어진 액체를 철장이라 하는데 철장을 치아에 물들이는 방법은 우선 이쑤시개로 이를 닦고, 끓여놓은 철장을 뜯과 같은 깃털 이쑤시개에 묻히고, 그 끝에 오배자분(五倍子粉)을 발라 치아에 도포 하는 것이다. 그 후에 맑은 물로 헹구어 낸다. 오배자분이라는 것은 옻나무과 식물의 “붉나무”的 어린 씩이나 잎

꼭지의 자리에 상처를 내어 그 자국에 의해 생긴 “혹” 상태의 突起物을 분말의 상태로 만든 것으로 “탄닌” 材를 말한다. 철장을 물들이는 모습은 보기 흥하다고 해서 옛날 여자의 교훈에는 다른 가족이 일어나 나오기 전, 이른 새벽에 행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

IV. 色調化粧文化의 性格形成 要因

1. 政治·經濟的 狀況

화장문화는 각시대의 정치이념과 상황, 경제적 여건, 국가간 외교를 비롯한 상호접촉의 영향이 반영되어 형성된다. 고대 유행의 변화 속도는 국가의 경제력에 달려 있었다. 국가가 강하고 부유할수록, 유행의 변화가 빨리 오고 가며, 경제가 침체되고 암흑기일수록 변화가 매우 적었는데⁹⁹⁾ 한국·중국·일본의 화장문화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을 볼 수가 있다.

唐은 중국 역사상 경제적, 외교적으로 가장 풍요로웠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唐의 정치이념은 개방적이었고 漢族외의 이민족에게도 관대한 정책을 표방하였다. 이러한 적극적인 개방정책과 국토의 신장은 西域이나 주변의 발달된 화장품 및 화장문화 수입을 용이하게 하여 唐代 화장문화를 진보시키는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안정은 풍성한 화장문화의基底가 되어 唐은 중국 역사상 가장 화려한 화장문화를 형성하였다.

한국에서는 三國時代에 이르러서 중국과의 교역이 활발해 지면서 중국의 발달된 화장풍속이 가세되어 본격적인 화장문화가 형성되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三國中 高句麗는 중국과 가장 인접해 있었던 만큼 중국과의 교류가 잦아 新羅나 百濟보다 훨씬 화장문화를 빨리 받아들일 수 있었다. 특히 중국에서 일찍부터 유행하였던 연지는 高句麗를 통해 일본에 전파될 정도로 高句麗에서 성행하였다.¹⁰⁰⁾ 唐과 시대를 같이하는 統一新羅는 대외

적으로 중국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던 시기로, 文武王 4년에는(664년) 부인의 服制를 중국식으로 바꾸라¹⁰¹⁾는 교지가 내릴 만큼 唐制의 모방을 정치·외교적인 목적으로 권장하고 장려하여, 여성 색조화장문화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풍성한 唐代의 복제와 화장문화의 모방은 대체로 짧은 화장경향을 유지하던 前代의 화장문화에서 길고 화려한 문화로의 전환점이 되었다. 당시 統一新羅가 정치적, 경제적 안정기에 있었기 때문에 唐制의 화려한 화장문화 도입이 가능했던 것이다.

대양의 가운데에 고립되어 있는 일본은 태고에는 거의 외국의 영향을 받지 못했고 오랫동안 고유의 풍속을 유지해오다가 고대국가 시대부터는 인접국인 한국과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왔다. 繩文시대에 중국대륙으로부터 화장품이 전래되었는데, 백분과 입술 연지가 수입되어 짧은 부녀자들은 다투어서 이들을 사용해 화장을 하였다¹⁰²⁾고 한다. 이 시기에 한반도를 경유하여 백분 등의 화장품이 전래되기도 하여 7세기 持統天皇대에 일본 산의 백분이 제조되기 전까지는 중국으로부터의 직접수입과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두 가지의 수입경로를 통하였다.¹⁰³⁾

일본에서 7세기에서 9세기에 걸쳐 260년동안 15회에 걸쳐 중국으로 파견한 遣唐使는 외교적인 측면이외에도 선진문화를 수입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¹⁰⁴⁾ 遣唐使를 통하여 뛰어난 대륙의 미술공예와 함께 화장법이 일본에 전해졌는데 遣唐使나 교역선을 통해 직접적으로 들어오거나 혹은 한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사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해져서 飛鳥, 奈良시대에 우수한 문화를 발달시키기에 이르렀다.¹⁰⁵⁾ 奈良·平安시대의 화장법이 唐의 영향을 받아 갑자기 발달하고 있다는 것은 墓輪에서 보여지는데, 중국풍의 의상, 妆飾, 장신구 등에서 일본고유의 것과는 다른 전체적으로 唐風을 띠고 있다는 것에서 쉽게 추측할 수 있다. 奈良의 正倉院 倉庫에 있는 樹下美人 屏風그림이나 吉祥天畫像 등을 보면 거의 중국의 풍속과

비슷하고, 뿐만 아니라 그 당시 唐朝 문화를 흡수하여 발달한 西域 여러 나라의 그림이나 조각이 나타나 있는 풍속과도 비슷하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奈良의 수도에서는 화장과 복식도 唐風을 그대로 모방하였다. 화장품으로는 입술연지, 백분, 朱香料등이 대륙에서 들어왔고 白銅鏡은 漢, 唐에서 홀륭한 제품이 수입되었고 일본에서도 또한 製鏡이 많이 제작되어진 것¹⁰⁶⁾으로 미루어 중국과 한국과의 교류로 화장품의 수입 외에 화장도구와 그 제작법도 전래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692년에는 新羅의 한 스님이 연분을 만들어주고 상을 받은 일이 있는데¹⁰⁷⁾ 이는 당시 新羅가 화장품의 제조기술을 일본에 전했던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연지가 일본에 전해진 것은 推古天皇 18년 9월에 高句麗 승려인 曺微이 홍화의 종자를 가지고 왔던 데서 비롯한다. 高句麗는 燕의 동쪽에 위치하고 풍토도 또한 비슷하여 일찍부터 燕의 우수한 문화가 전해지고 있었고¹⁰⁸⁾ 연지의 원료인 홍화가 高句麗시대에 재배되고 있었던 것이다.

8세기말이 되면 平安의 수도가 정해지고 자국 문화형성의 기운이나 자각이 일어나고 唐 후기에는 唐의 국위도 떨어져 唐으로부터의 정치적 원조를 받을 필요도 없어졌다. 894년 藤原道眞의 건의로 遣唐使가 정지되고 문물 풍속의 모방은 점차 폐지되었다. 平安시대에 이런 일이 시작되어 그 이후 實町시대 末期에 이르러서 일본의 독자적 문화가 발달하였다. 藤原氏가 정권을 장악한 平安 중기는 생활 속에서 화장의 위치가 향상된 시기라고 말할 수 있다.¹⁰⁹⁾ 이렇게 화장문화는 국권의 정도에도 영향을 받아 주변국이 상대적으로 부강하면 그의 문화를 더 많이 수용하는 경향이 있고 반대로 자국이 강해지면 주변국 화장문화의 모방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양식이 생겨나는 예를 볼 수 있다.

2. 宗 教

대체로 많은 종교이념에서 보여지는 절제가 불교의 신앙생활에서도 보편적으로 강요되었는데, 高麗시대에는 佛家에서 여성의 짙은 화장을 금했으며¹¹⁰⁾ 일부 사찰에서는 화장품을 겹겹이 친하게 바른 신자들의 사찰출입을 금지시킨 예¹¹¹⁾도 있어 高麗여성의 화장경향이 佛家에서 통제해야 할 정도로 화려하였음을 짐작케 한다. 또한 불교가 여성의 색조화장에 대하여 대체로 통제의 입장을 취하였음을 알 수 있다.

중국과 한국 특히 朝鮮시대에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유교이념의 영향을 받게 되었는데 특히 여성에게 많은 통제를 가하게 되었다. 女四書중 「女誠」에 여자의 법도에 대해 말하기를 "...出無治容하고 入無廢飾하고..."라고 하였는데 이는 곧 외출시에는 야한 화장을 하지 말 것이며 집에서는 자신을 가꾸는데 계을리 하지 말 것을 이르는 말로서 여자들의 짙은 화장을 경시하고 금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¹¹²⁾ 또한 内則에는 "여자가 문을 나서면 반드시 낮을 가릴지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곧 부득이 하여 문을 나가게 되더라도 남에게 낮을 보이지 말라고 함이다. 高麗시대에는 부녀가 밖을 나감에 笠帽를 쓰되 앞창을 채우고 부채로 낮을 가렸으나 朝鮮朝 태종 이후로는 부녀가 부채를 지니는 일마저 금하고 있다.¹¹³⁾ 이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상소문중에 "국왕이 出幸할 때면 문을 열고 발을 치거나 바닥을 쓸고 자리를 깔거나 하여 양반계급의 婦女姬妾들이 가마를 타고 와 앉아 바깥을 보고 관람하매 음식은 陣陣하고, 의상은 楚楚하며, 분바른 낮은 불그레하고 희어서 벌에 얼비치었다."¹¹⁴⁾고 하는 것에서 朝鮮前期에는 유교의 내외법과 폐면의 풍습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색조 화장이 시행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유교관으로 인한 여성 외출의 억압은 朝鮮시대의 화장문화에 있어서 화장품의 방문판매라는 독특한 유통방식이 생겨나게 하였다. 즉, 朝鮮시대에는 화장품을 취급하는 상점인 分전(粉塵)이 있었는데, 본전을 통한 상점판매 보다는 여인

들이 행상으로 판매하는 예가 더 많았고 보부상들 외 방문판매도 이루어지고 있었다.¹¹⁵⁾ 일본에 도입된 유교이념은 종교적인 의미보다는 학문과 윤리 체계적인 면에서 널리 수용되었는데, 화장문화에 있어서 한국이나 중국과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일본에서의 유교적인 가르침은 "화장을 하는 것은 여자의 예이며 몸가짐이다."라고 하였고 「新撰增補女大學(1880)」에서는 "부인은 용모를 꾸미지 않고 임금과 아버지를 만나서는 안된다..."¹¹⁶⁾라고 하여 대인관계에 있어서 화장을 하는 것이 예의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짙은 화장은 遊女와 같다고 하여 武家の 社會에서는 꺼렸지만 화장 자체가 전면적으로 거부되는 일은 없었다.¹¹⁷⁾ 일본에서 유교가 여성 화장문화에 미친 영향은 맨 얼굴을 감추고 남편과 아버지 즉 남성을 만나는 것이 여성의 도리라는 인식을 가지게 함으로써 본래의 얼굴을 화장으로 써 숨기는 것에 대한 당위성을 가지게 하였다. 일본에서 더욱 백분을 선호하게 되었던 이유중의 하나로 일본에서는 白色이 純潔한 色이고 神들이 좋아하는 色¹¹⁸⁾이라는 관념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신과 관련된 모든 의식에 흰색의 의복과 백분을 사용하는 것이 당연시되었고 일본 전역에서 사용되어졌던 것이다.

3. 情 緒

시대와 지역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상과 정서에는 차이가 있다. 당시 사람들에게 공감되고 만연되어 있는 사상이나 시대가 갖는 정서에 따라 화장의 경향이나 濃淡이 달라졌던 사실을 알 수 있다. 朝鮮시대에는 여성의 색조화장을 기피하고 청결과 피부를 가꾸는 기초화장을 중시하는 화장문화를 이루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은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타고난 아름다움을 소중히 하는 국민의 정서와 미인박명의 고정 관념, 내면의 부덕을 중시하는 이념과 깊은 관련

이 있을 것이다. 당시의 이러한 사상은 朝鮮시대의 문학작품에도 반영되어 여성의 색조화장문화에 통제를 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朝鮮시대 전기의 문학은 性理學과 儒教思想의 규제성이 지나쳐서 그 엄격함과 규범성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고 유교 윤리규범의 사고에서 탈피하지 못하였다.¹¹⁹⁾ 朝鮮前期의 이러한 작품 경향은 당시 여성의 행동에 많은 제약을 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朝鮮시대 뿐만아니라 중국과 일본에서도 시대에 따라 여성의 짙은 화장을 기피하는 정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문학작품 속에 반영되어 여성 색조화장에 대한 비판적인 기술을 한 것을 볼 수 있다. 일례로 일본에서 화장문화가 가장 발달하였다고 볼 수 있는 平安시대에 수필 등의 문학작품 속에서는 여성의 짙은 화장을 장려하고 있으며 전하고 빨간 화장을 “다방의 여자”로 비유하고 있다.¹²⁰⁾ 그 시대 다른 문학작품에서도 짙은 화장을 장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다수 있지만 화장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것은 일본인의 은폐정서와 관련이 있는 것 같다. 화장문화와 관련된 일본인의 정서는 “얼굴을 감추고자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일본인이 얼굴을 숨기려는 의도는 내면에서 느낀것을 외면으로 나타내지 않는 것이 좋다는 그들의 인식과 관련이 있으며 지금도 현대 일본인에 대해서 외국인은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 무표정하다. 가면같다”는 평가를 한다.¹²¹⁾ 일본인이 얼굴을 감추는 기원은 平安시대의 귀족계급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 귀족계급의 여성은 휘장이나 발을 통해서 사람을 대면하는 것이 습관으로 되어 있었고 被衣, 시녀립 등의 복면을 발달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거듭되는 금지령으로 인하여 복면이나 두건의 사용이 폐지되고 江戸시대에 여성의 머리 형이 남자머리의 영향을 받아 땅아 위로 올리게 되자, 얼굴이 완전히 노출되었다. 이것이 일본여성의 얼굴을 감추기 위한 화장¹²²⁾의 발달을 가져오는 동기가 되고 있다. 즉 平安시대에는 머리카

락으로써 얼굴의 많은 부분을 가리게 되는데 머리카락을 귀에 끼우는 일조차 “예의 없음”으로 간주되었고 이것 역시 얼굴의 노출을 꺼려했기 때문이었다. 武家女性의 예법서에 즐가한 여성은 남편이나 부모 앞에서 맨 얼굴을 하지 말 것과 반드시 화장을 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며 분을 바르는 부분은 항상 얼굴의 노출과 관계가 있어 머리를 올리는 것이 유행하는 시기에는 이마나 목덜미까지 분을 발라 문지르게 되어 분의 소비가 늘어나게 되었다.¹²⁴⁾ 일본의 눈썹화장 또한 그들의 얼굴을 감추고자하는 정서와 관련이 있다고 보아진다. 눈썹만큼 눈이나 입 이상으로 내면의 감정을 여실히 표현하는 것도 없다. “눈썹하나 움직이지 않는다.” “눈살을 찌푸린다.”라는 관용구를 제외하고라도 눈썹의 표정이 감정과 결부된 사항이 많다는 것은 알 수 있는 사실인데, 일본의 화장문화에서 여성의 성인이 되거나 아이를 출산하면 눈썹을 제거해야만 했던 것은 눈썹을 통한 감정전달을 불가능하게 했던 것을 의미한다. 즉, 여성은 감정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표시로서의 기능과 눈썹의 형에서 오는 인상을 표현하는 것이 부정된 것인데¹²⁵⁾ 이외에도 본래의 모습을 감추고자 하는 화장으로 치혹을 들 수 있다. 겸게 빛나는 치아는 당시 일본인의 심미안으로는 매력도 있었을 것지만 본래의 흰 치아를 감추고자 하는 의도¹²⁶⁾가 숨어있는 것이다. 그것은 현대 일본인이 치열이 보이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입모습을 숨기려는 의도가 남아있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인의 얼굴을 감추고자하는 정서, 특히 내면의 감정을 얼굴에 표현하기를 꺼려하는 그들의 假面적인 정서는 일본인의 화장문화 근저에 흐르는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이다.

4. 女性의 地位

여성지위가 화장행위의 정도와 화장기법 및 화장품의 다양성에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추측된

다. 역사적으로 여성의 지위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되고 남성에 비해 지위가 열악하지 않았던 시기에는 대체로 여성의 화장은 다채롭고 풍성한 경향을 나타냈다.

중국의 三國시대와 六朝시대에 부인은 일상적인 집안관리, 자녀양육, 하인 부리기 등에서 거의 남편과 같은 권위를 가졌다. 당시 여자들은 화장을 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소모했다며 여성 색조화장문화의 절정기라 할 수 있는 唐代에서도 前代나 後代에 비해 여성관이 개방적이었고 여성의 행동은 자유로운 편이었다. 한국의 경우에, 여성의 지위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되었던 고려시대까지는 절은 화장에 대한 관습적인 통제나 사회의 비난이 심하지 않았으나 朝鮮朝에 이르러 여성지위의 하락과 함께 여성의 절은 화장이 기피되는 경향이 있어 화장문화의 진보과정에 있어 퇴보의 결과를 놓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일본에서도 보여지고 있는 바 鎌倉시대부터 室町시대까지는 전국에 걸쳐 전란에 휩싸이게 되었고 이러한 정치상황에 희생을 당했던 것은 여성들이었고 결혼이 무사들의 정략적인 도구로 사용되었다. 이 시대 여성의 화장에 대한 기술이 적었던 것은 당연한 것이며, 이것은 화장문화가 혼란한 시대상과 여성의 하락한 지위를 반영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 시대 여성의 아름다운 외모는 중요시되지 않았고, 질박하거나 간소하고 실용성을 추구하는 武家風이 침투하였기 때문에 화장법도 平安시대의 요령한 화장은 점차 武家の 취향에 따라 변하고 민간에까지 미쳤다.¹²⁷⁾

V. 結 論

(1) 한국·중국·일본지역 색조화장의 초기유형인 신체도색과 문신은 실용적, 주술적 목적에서 시작되었으며 차츰 장식적인 목적이 더 강해졌다. 의복문화의 발달로 인한 신체의 被服은 색조화장이 얼굴을 중심으로 해서 발달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얼굴을 중심으로 한 색조화장이 여성의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가장 중요한 계기는 농경생활의 시작으로 인한 남·녀 노동의 분업화가 놓은 “여성미 개념”인 것으로 판단된다.

(2) 화장행위는 대인관계에 있어서 좋은 인상을 줄 수 있고, 자신감을 얻어 적극적으로 생활할 수 있으며, 주술적 기능을 통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얻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계급과 상황을 나타내는 기능과 함께 이성의 관심을 유도하여, 종족보존의 기능도 가지게 되었다. 한편 주술과 신분 및 지위표시라는 주술적·상징적인 기능은 점차 쇠퇴해지고 후대에는 장식과 피부보호적인 심미적·실용적 기능이 강조되었다.

(3) 분(粉)은 초기에는 쌀가루, 찹쌀가루, 밤가루와 같은 곡식의 분말이었으나 이것은 흡착력이 부족하여 납과의 화학작용을 이용하여 흡착력을 높인 연분이 제조되었다. 그러나 연분은 장기간 사용할 경우 납중독을 일으켜 연분에 대체할 분의 제조노력이 이루어져 수은을 사용한 백분이 제조되었다. 한·중·일 삼국의 대표적인 분은 미분과 연분이었고 원료, 제조법, 사용법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4) 연지는 주로 붉은 색이었으며 그 원료는 홍화였다. 연지는 분화장위에 덧칠하여 사용하기도 하고 분과 섞어서 색분의 대용품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사용법에 있어서 중국은 연지와 분을 함께 사용하여 안색이 전체적으로 붉은 홍화장이 오랫동안 성행하였고, 한국에서는 統一新羅때에 중국의 풍습을 따른 연지의 운용이 있었던 듯 하고 그 이후로는 뺨의 부분화장으로 제한되는 등 중국에 비해 홍화장이 성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고래로 적색을 선호하여 홍화장이 성행하였으며 平安朝때에 연지를 이마에 발랐던 풍습을 제외하고는, 江戶시대 이전에는 안색전체가 붉은 경향을 띠는 중국과의 유사성이 나타나는데 江戶시대부터는 연지를 뺨에 운용함으로써 한국과의 유사성을 나타내었다.

(5) 미복(眉墨)은 목재를 태운 것 혹은 광물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눈썹을 그리는 기법은 대체로 눈썹의 두께, 길이, 굴곡, 위치 등의 변화로 집약되지만,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양하였다. 특히 한·중·일 삼국의 눈썹화장양식은 시대에 따라 유사성이 보이기도 하지만, 기법에 있어 뚜렷한 상이점이 발견된다. 중국은 삼국중 눈썹을 그리는 “기교”에 가장 치중하여, 눈썹양식이 다양하였고 변화가 많았다. 한국은 “본연의 미”를 유지하는 경향으로 본래의 모습에서 뽑아 가다듬고 보충하여, 인상의 크게 달라 보이지 않으면서, 단아하고 깔끔한 표현을 즐겨 하였다. 일본은 전기에는 중국의 영향을 받은 흔적이 보이나, “변형미”的 경향이 농후하여 눈썹을 완전히 제거하거나 이미 상단에 눈썹을 그리는 화장법등 독특한 눈썹화장양식을 보인다.

(6) 입술연지는 입술의 형태를 변화시키는데 사용되었다. 사회기풍의 변화와 심미안의 변천에 따라 입술 그리는 형식에 변화를 가져왔고 초기에는 주사를 사용하다가 후에는 연지로 대체되어 사용되었다. 대체로 본래의 입술보다 다소 작게 그리는 추세였으며 일본에서는 검푸른 입술이 여성들 간에 선호되기도 하여 눈썹화장에서 보여지는 “변형미”를 나타내고 있다.

(7) 국가가 추구하는 통치이념이 개방적이고 포용력이 있는 시대의 화장경향은 다채롭고 화려하였으며 균검과 절제,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시대의 화장경향은 담박하고 얹어지는 경향이었고 일본의 明治시대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개혁이념을 반영하여 눈썹제거와 치흑등 일정 화장양식이 소멸하는 경우도 있다.

주변국과 자국의 국력이 화장문화에 영향을 끼친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중국 최성기인 7~8세기에 일본은 唐風을 모방하는 화장경향이었으나 그 이후 唐의 국권 쇠탁은 일본 자국풍의 화장문화를 정착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국가가 경제적으로 안정될수록 부녀자의 색조

화장은 질어지고 화장양식은 다양하였으며 화장품의 제조법도 상당히 진보되었다.

화장품의 원료, 제조법 및 사용법은 중국에서 한국과 일본으로 전파되는 경향이었다. 중국은 唐代에 西域과의 교류가 활발하여 많은 화장문화가 중국으로 유입되었고 이것은 다시 한국과 중국으로 전파되어 각 지역간 화장문화의 유사성을 보이는 요인이 되었다. 일본은 대체로 한국을 통하여 문화를 받아들였으나 遣唐使의 파견 등 직접교류의 혼적도 보인다. 화장품 제조술과 사용법의 교류는 화장문화의 다양성에 기여를 하였고 화장문화의 진보를 가속화 시켰으며 삼국간 특정시기의 화장경향이 유사성을 띠게 하는 요소가 되었다.

(8) 불교는 불장이라는 새로운 화장풍습을 만들기도 하였고 짙은 화장을 한 부녀는 사찰출입을 금하는 등 화장문화의 진보와 통제에 영향을 미쳤다. 유교이념은 여성의 짙은화장을 기피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으나 일본에서는 여성색조화장의 진보에 기여를 하기도 하였다. 같은 종교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문화에 따라 달리 해석되어 색조화장문화에 통제와 진보라는 상반된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9) 화장문화는 국민의 정서를 반영하여 내면의 미와 타고난 아름다움을 중요시하는 정서가 지배적었던 조선시대의 화장경향은 기초화장에 치우치고 짙은 색조화장을 기피하는 경향이었다. 또한 일본인의 “은폐정서”는 눈썹을 제거하거나 치아를 검게 물들임으로써 내면감정의 노출을 통제하고 본래의 모습을 숨기려는 독특한 화장 풍습의 요인이 되고 있다.

(10) 여성 색조화장문화는 당대 남성에 대한 여성의 지위를 반영하여 개방적이고 여성의 지위가 보장된 시대일수록 화장문화는 진보하였다.

참고문헌

- Elizabeth B. Hurlock, 「의복의 심리학」, 임숙

- 자외 譯(1995), 교문사, p.23.
- 2) 深作光貞, 『衣의 문화인류학』, 신영선 譯(1990), 교문사, p.150.
- 3) 윗 책, p.150.
- 4) 久下 司(1993), 「日本化粧 文化史研究」, ピエーティビジネス, p.9.
- 5) 윗 책, p.10.
- 6) 윗 책, p.12.
- 7) 추애주(1985), “소외의 관점에서 본 아름다움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p.9.
- 8) 大坊郁夫・神山 進(1996), 「被服と 化粧의 社會心理學」, 京都: 北大路書房, p.29.
- 9) 이상일(1994), 『변신이야기』, 밀알, p.17.
- 10) 이강렬(1986), 『가면의 민속학』, 경서원, p.15.
- 11) 윗 책, pp.17~18.
- 12) 李杜鉉・張籌根・李光奎(1982), 「한국민속학 개설」, 보성문화사, p.294.
- 13) 深作光貞, 앞 책, p.20.
- 14) Elizabeth B. Hurlock, 앞 책, p.21.
- 15) 윗 책, p.21.
- 16) 大坊郁夫・神山 進, 앞 책, p.130.
- 17) 윗 책, p.130.
- 18) 大坊郁夫・神山 進, 앞 책, p.126.
- 19) 周 汎・高春明(1992), 「中國歷代婦女裝飾」, 學林出版社, p.120.
- 20) 윗 책, p.16.
- 21) 윗 책, p.12.
- 22) 大坊郁夫・神山 進, 앞 책, p.134.
- 23) 周 汎・高春明(1992), 앞 책, p.118.
- 24) 久下 司(1996), 앞 책, p.17.
- 25) 윗 책, p.118.
- 26) 전완길(1994), 「한국화장문화사」, 열화당, 42.
- 27) 宣和奉使高麗圖經, 卷二十 貢婦
- 28) 전완길(1994), 앞 책, p.46.
- 29) 久下 司(1996), 앞 책, p.69.
- 30) 윗 책, p.18.
- 31) 久下 司(1996), 앞 책, p.72.
- 32) 周 汎・高春明(1992), 앞 책, p.118.
- 33) 윗 책, p.119.
- 34) 「국제미용조형」 제3집(1995), 上海科學普及出版社, p.20.
- 35) 周 汎・高春明, 앞 책, p.119.
- 36) 전완길(1994), 앞 책, p.42.
- 37) 김은주(1989), “한국전통화장풍속사에 관한 연구”, 「복식」 13호, p.44.
- 38)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5」, 응진출판사, p.327.
- 39) 조효순(1988), 「韓國服飾風俗史研究」, 일지사, p.377.
- 40) 김상억(1990), 「朝鮮女俗考」, 동문선, p.351.
- 41) 조효순(1988), 앞 책, p.378.
- 42) 久下 司(1996), 앞 책, p.245.
- 43) 윗 책, p.246.
- 44) 윗 책, p.246.
- 45) 윗 책, p.349.
- 46) 윗 책, p.124.
- 47) 「국제미용조형」 제3집(1995), p.10.
- 48) 「국제미용조형」 제3집, p.20.
- 49) 杉本正年, 「東洋服裝史論考」-古代-, 문광희 譯(1995), 경춘사, p.152.
- 50) 周 汎・高春明(1992), 앞 책, p.126.
- 51) 윗 책, p.126.
- 52) 윗 책, p.126.
- 5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앞 책, p.327.
- 54) 尹蓮重(1996), 「화장문화」, 국립민속박물관 編, 「한국복식2천년」, 신유, p.262.
- 55) 김은주, 앞 글, p.48.
- 56) 尹蓮重, 앞 글, p.262.
- 57) 김은주, 앞 글, p.48.
- 58) 「新唐書」
- 59) 「三國史記」, 卷六, 新羅本紀, 第六, 文武王條.
- 60) 고정일(1995), 「한국세계대백과사전」, 동서문화, p.17883.

- 61) 「宣和奉使高麗圖經」, 卷二十 貴婦 “柳眉半額”
- 6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앞 책, p.328.
- 63) 조효순(1988), 앞 책, p.388.
- 64) 久下 司(1996), 앞 책, p.67.
- 65) 윗 책, p.68.
- 66) 윗 책, p.69.
- 67) 久下 司(1996), 앞 책, p.62.
- 68) 大坊郁夫·神山 進(1996), 앞 책, p.26.
- 69) 久下 司(1996), 앞 책, p.62.
- 70) 윗 책, p.63.
- 71) 大坊郁夫·神山 進(1996), 앞 책, p.26.
- 72) 윗 책, p.135.
- 73) 윗 책, p.135.
- 74) 「국제미용조형」3집, p.14.
- 7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앞 책, p.326.
- 76) 김은주, 앞 글, p.45.
- 77) 久下 司(1996), 앞 책, p.64.
- 78) 윗 책, p.67.
- 79) 憑虛閣 李氏, 「閨閣叢書」, 鄭良婉 譯(1975), 寶晉齋, p.236.
- 80) 金富軾, 「三國史記」, 券三十二 雜志 樂 高句麗
- 81) 周 汎·高春明, 앞 책, p.133.
- 82) 박용숙(1991), 「한국 미학사상」, 일월서각, pp.188~192.
- 83) 尹蓮重, 앞 글, p.262.
- 84) 윗 글, p.262.
- 85) 周 汎·高春明, 앞 책, p.132.
- 86) 윗 책, p.132.
- 87) 윗 책, p.132.
- 88) Elizabeth B. Hurlock, 앞 책, p.233.
- 89) 李暉光, 「芝峯類設」, 卷十一.
- 90) 尹蓮重, 앞 글, p.262.
- 91) 윗 책, p.133.
- 92) 윗 책, p.133.
- 93) 周 汎·高春明, 앞 책, p.133.
- 94) 윗 책, p.134.
- 95) 周 汎·高春明, 앞 책, p.134.
- 96) 윗 책, p.134.
- 97) 윗 책, p.134.
- 98) 윗 책, p.687.
- 99) Elizabeth B. Hurlock, 앞 책, p.57.
- 100) 조효순(1988), 「한국복식풍속사연구」, 일지사, p.375.
- 101) 「三國史記」, 卷六 新羅本紀六 文武王 四年 正月 “下教婦人 亦服中朝衣裳”
- 102) 久下 司(1996), 앞 책, p.18.
- 103) 윗 책, pp.42~43.
- 104) 김희영(1993), 「이야기 일본사」, 청아출판사, p.43.
- 105) 久下 司(1996), 앞 책, p.106.
- 106) 윗 책, p.28.
- 107) 동아출판사 백과사전부, 「동아원색세계대백과사전」, 동아출판사, p.403.
- 108) 久下 司(1996), 앞 책, p.245.
- 109) 津田紀代·村田孝子(昭和60), 「眉의 文化史」, ポーラ文化研究所, p.4.
- 110) 동아출판사 백과사전부, 앞 책, p.403.
- 11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앞 책, p.327.
- 112) 김종권(1987), 「女四書」, 명문당, p.46.
- 113) 김상역(1990), 「조선여속고」, 동문선, p.348.
- 114) 윗 책, pp.350~351.
- 11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앞 책, p.330.
- 116) 大坊郁夫·神山 進(1996), 앞 책, p.141.
- 117) 윗 책, p.141.
- 118) 久下 司(1996), 앞 책, p.24.
- 119) 김영주(1992), 「신기론으로 본 한국미술사」, 나남, p.237.
- 120) 大坊郁夫·神山 進(1996), 앞 책, p.140.
- 121) 윗 책, p.132.
- 122) 윗 책, p.133.
- 123) 윗 책, p.133.
- 124) 윗 책, p.127.
- 125) 위 책, p.131.
- 126) 윗 책, p.134.

127) 津田紀代・村田孝子 編(昭和60), 앞 책, p.7.

ABSTRACT

A Study on Make-up Culture of Korea, China and Japan

The present research is to study the make-up culture of Korea and its neighboring countries such as China and Japan during the period from the prehistoric age to the 19th century. The research was made by documents analysis. The results are summarised as follows :

(1) A man has a basic instinct to beautify himself. There was not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make-up behavior of men and women in its primal stage. It was by the start of farming and the division of labor that made the make-up behavior as a feminine culture. The difference of sexual role caused the conceptual difference between manly beauty and womanly beauty. It was very natural for women to regard the make-up as the best way for showing their feminine beauty.

In Korea, China and Japan, there were various kinds of primal actions such as tattooing, body-painting, and tooth make-up which were used in the purpose of body protection, incantation, ornament, and so on. As their ornamental purpose was becoming more important, these primal actions became the basis of the feminine make-up culture.

Nowadays make-up, having mental and emotional function, is helpful to increasing self-satisfaction, promoting good personal relationship, and attracting attention from the other

sex. It also has other functions of showing social status, wealth, age, sex, courage, power, and so on.

(2) The representative make-up product used widely in the three countries was Boon (powder) which decides the overall color of face. The key point in the production of Boon was to increase its power of adsorption. The invention of Yunboon (powder mixed with lead) solved this major problem of Boon.

Yeonji which decides the color of cheek was the mixture of Boon and the powder of Honghwae (a kind of red-colored flower or tree). Mimook (eyebrow pencil) was developed to match up with the various and changing currencies of penciling eyebrows in each nation and times. Yeonji and Joosa (red sand) were used as Jinji (lip stick). The predominant color of Jinji was red.

As miscellaneous methods of partial make-up, there were Kon-ji used in a wedding ceremony in Korea, Aek-hwang, Hwa-jeon, Sa-hong, and Myun-yup in China, and Chi-heuk, a peculiar method of partial make-up in Japan.

(3) There were various factors which decided the characteristics of make-up culture usually reflects international atmosphere, the form of government, economic situation, religious and social ideology, aesthetic sense, symbolizing meanings of colors, and so on.

The up and down of an influential country was one of the major factors which decid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make-up culture of its neighboring countries. When a country took a liberal form of government, it had diverse and splendid tendencies in its make-up culture.

The better a nation's economic situation is, the more abundant and various its make-up culture is, and sometimes, the more eccentric and decadent it was.

In the field of make-up production, the three countries had their own characteristics. But, as a whole, China was the leading nation who spread the culture and products of make-up to Korea and Japan. Though the Chinese make-up culture and products were usually spread to Japan through Korea, there was some evidence of direct exchanges between China and Japan through its dispatches of Kyun-Tang-Sa (Japanese delegation to the Tang Dynasty).

While religion had a positive influence on the development of make-up culture by introducing new methods of make-up, Confucianism exercised strict control over the make-up culture.

The currencies in arts and changes of esthetic sense introduced new methods and booms to the make-up culture. Literature made people pay increasing attentions to the countenances of women and changed the standards of esthetic sense.

We can find out that the social status of woman was also reflected in the make-up culture.

As the social status of women became higher, the feminine make-up culture also developed more than ever.

As mentioned above, the make-up cultures of the three countries reflected their social values, esthetic senses, and emotional feelings. Through their cultural exchanges, the three countries could develop various make-up products and methods.